

朝鮮時代 嘉禮都監儀軌의 班次圖에 나타난 服飾 研究

金 貞 振* · 白 英 子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A Study of Costume Through the Ban-cha-do in the Ka-rae-do-gam-eui-gue of the Yi Dynasty

Kim Jung Jin* · Baik Young J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1990. 2.26 접수)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rough the Ka-rae-ban-cha-do(嘉禮班次圖) in the Ka-rae-do-gam-eui-gue(嘉禮都監儀軌), how the system of costume used in ceremony exchanged during the middle, late the Yi dynasty and in the period of introducing Western civilization. The procedure of the royal marriage is also studied here.

The procedures of Ka-rae were divided into the six traditional etiquettes(六禮) : Nap-che(納采), Nap-gyng(納徵), Go-gi(告期), Chaik-bi(冊妃), Chin-young(親迎), and Dong-roe(同牢).

The change of the gener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the costume used in the ceremony in Ka-rae-ban-cha-do are as follows:

The costume in Ka-rae-ban-cha-do can be divided into the Guard costume(扈衛服飾) and the Ceremonial arms costume(儀仗服飾).

The most formal attire of the Guard costume, Yangkwan-Chobok(梁冠—朝服) and Samo-Danryeong(紗帽—團領) with Huygpai(胸背) can be seem only in the Ka-rae of late king's.

Of the Ceremonial arms costume, the most outstanding was Hongkun-Honggeui(紅巾—紅衣), which showed up in almost all Ka-rae-ban-cha-do. Heukkun-Changos·Deogrei(黑巾—창옷·더그레) were worn as well. In the style of costume emphasis convenience and practicality rather than on beauty, because they had to carry the arms used in ceremony with them nevertheless by using primary colors it was very colorful.

This costume in Ka-rae-ban-cha-do has little difference, but great changes are shown in Sunjongsunjongbi Ka-rae-ban-cha-do(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

Most costume of the past was replaced with western hat and suit, so the duplicate state of

our costume and western costume came into existence during the period of introducing western civilization.

I. 序 論

服飾史를 연구하는 데는 벽화, 회화, 유물, 문헌 등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현재까지 많이 전하여 지지않고 있어 服飾史 研究에 많은 애로점이 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壬辰倭亂, 丙子胡亂등을 거치면서 많은 자료들이 손실되었고, 그나마 적은 자료들이 보존되어 服飾史 研究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本稿의 研究資料인 嘉禮班次圖도 그 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에는 王, 王世子, 王世孫의 婚禮를 嘉禮라하여 國婚으로 거행하면서 행사 전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를 嘉禮都監儀軌라 하고, 여기에는 행사의 진행과정 중 가장 중요한 場面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嘉禮班次圖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

朝鮮時代는 특히 禮를 중시했던 만큼 嘉禮班次圖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服飾은 하나의 儀禮服으로서 조선시대 중후기의 儀禮服飾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되어 연구자료로 意義가 크다하겠다.

현존하는 嘉禮都監儀軌는 壬辰倭亂 이후 것들로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仁祖 5年, 1627)에서부터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光武 10年, 1906)까지 총 30冊이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嘉禮班次圖는 20件으로 本 研究의 主 資料이다. 本 稿에서는 총 20件의 嘉禮班次圖 中 앞의 嘉禮 10件을 前期 嘉禮班次圖, 뒤의 嘉禮 10件을 後期 嘉禮班次圖로 하여 研究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目的은 嘉禮都監儀軌에 수록되어 있는 嘉禮班次圖를 통해서 먼저 國婚으로 거행되는 嘉禮의 儀式節次를 알아보고,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朝鮮中後期の 儀禮服의 特徵과 變貌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嘉禮班次圖의 概觀

1. 嘉禮班次圖의 概脫

朝鮮時代의 嘉禮都監儀軌는 王, 王世子, 王世孫, 皇太子的 婚事를 國婚으로 치르는 동안에 그 準備過程과 嘉禮儀式節次를 행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啓

辭, 傳教, 文牒들과 아울러 所要된 經費와 物目 등을 記錄해 놓은 冊으로¹⁾ 여기에는 그림(班次圖)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그림을 嘉禮班次圖라 하며 이것은 御駕行列의 한 種類로서 國婚이 舉行되는 嘉禮儀式節次—納采, 納徵, 告期, 冊妃(世子嬪의 경우는 冊嬪), 親迎, 同牢—중 가장 중요한 장면을 彩色圖畫한 것이다.

이러한 嘉禮班次圖는 現在 20件이 전해지고 있는데, 仁祖 5年(1627)의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에서부터 光武 10年(1906)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까지의 279年間에 거행된 嘉禮 20件에 대한 것이다.

嘉禮 20件 中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仁祖 5年)부터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英祖 20年)까지의 앞의 嘉禮 10件은 嘉禮都監儀軌 1卷씩에 수록되어 있으나, 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英祖 35年)부터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光武 10年)까지의 뒤의 嘉禮 10件은 嘉禮都監儀軌 上下 2卷에 나뉘어 수록되어 있으므로, 嘉禮都監儀軌는 총 30冊이며 이에 나타난 嘉禮班次圖는 20件으로 現存하는 嘉禮都監儀軌의 구체적인 種類는 다음과 같다²⁾(表 1).

이렇게 冊數가 다른 것은 英祖 25年(1749)에 제정된 「國婚定例」와 英祖 28年(1752)에 제정된 「尙方定例」가 국가의 婚事인 嘉禮에 대하여 엄격한 定例를 만든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兩定例가 나오기 以前에 거행된 嘉禮 10件은 모두 1冊으로 구성된 반면, 그 以後에 舉行된 嘉禮 10件은 모두 2冊으로 構成되어 있다³⁾.

歷代 嘉禮班次圖는 모두 同一한 것이 아니라 內容이나 길이, 嘉禮對象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嘉禮對象 별로 보면, 仁祖莊烈后嘉禮班次圖를 비롯한 王의 嘉禮 9件, 昭顯世子嘉禮班次圖를 비롯한 王世子 嘉禮 9件, 王世孫의 正祖孝懿后嘉禮班次圖와 皇太子의 嘉禮인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가 각각 1件씩이다.

嘉禮班次圖의 內容은 크게 親迎儀와 同牢宴으로 되어 있다. 즉, 前期 嘉禮班次圖는 嘉禮儀式節次 중 제일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儀式인 同牢宴을 치르기 위하여 王妃나 王世子嬪이 別宮에서 御展으로 시위를 받으며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것이고, 後期 嘉禮班次圖는 왕이 왕비집

< 丑 1 > 嘉禮都監儀軌의 種類

구분	번호	세기	儀軌名	王朝年 西記	身分	冊數	班次圖 面數	班次圖 規格 cm	所藏
前期 嘉禮 班次圖	1	17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仁祖 5 (1627)	王世子	1	8	44.5×35.5	奎章閣 藏書閣
	2	17	仁祖壯烈后 嘉禮都監儀軌	仁祖 16 (1638)	王	1	8	44.5×30.7	奎章閣
	3	17	顯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	孝宗 2 (1651)	王世子	1	12	45.6×35.4	奎章閣 藏書閣
	4	17	肅宗仁敬后 嘉禮都監儀軌	顯宗 12 (1671)	王世子	1	12	47×35	奎章閣 藏書閣
	5	17	肅宗仁顯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7 (1681)	王	1	18	45.9×34.5	奎章閣
	6	17	景宗端懿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22 (1696)	王世子	1	12	46.3×33.5	奎章閣 藏書閣
	7	18	肅宗仁元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28 (1702)	王	1	18	46×33.6	奎章閣
	8	18	景宗宣懿后 嘉禮都監儀軌	肅宗 44 (1718)	王世子	1	12	45.3×33.2	奎章閣 藏書閣
	9	18	眞宗孝純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3 (1727)	王世子	1	12	46.8×32.7	奎章閣
	10	18	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20 (1744)	王世子	1	12	44.9×33.6	奎章閣
後期 嘉禮 班次圖	11	18	英祖貞純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35 (1759)	王	2	50	45.8×33	奎章閣
	12	18	正祖孝懿后 嘉禮都監儀軌	英祖 38 (1762)	王世孫	2	18	45.7×33	奎章閣 藏書閣
	13	19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	純祖 2 (1802)	王	2	52	46.9×33.2	奎章閣 藏書閣
	14	19	文祖神定后 嘉禮都監儀軌	純祖 19 (1819)	王世子	2	52	45.8×32.4	奎章閣 藏書閣
	15	19	憲宗孝顯后 嘉禮都監儀軌	憲宗 3 (1837)	王	2	68	44.6×31.9	奎章閣 藏書閣
	16	19	憲宗孝定后 嘉禮都監儀軌	憲宗 10 (1844)	王	2	80	46×31.7	奎章閣
	17	19	哲宗哲仁后 嘉禮都監儀軌	哲宗 2 (1851)	王	2	92	46.3×32.5	奎章閣 藏書閣
	18	19	高宗明成后 嘉禮都監儀軌	高宗 3 (1866)	王	2	82	45.9×31	奎章閣
	19	19	純宗純明后 嘉禮都監儀軌	高宗 19 (1882)	王世子	2	70	44.9×32.4	奎章閣
	20	20	純宗純宗妃 嘉禮都監儀軌	光武 10 (1906)	皇太子	2	46	45.3×32.4	奎章閣

에 친히 남시어 親迎儀를 마치고 왕비를 데리고 還宮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들 중 前·後期の 가장 대표적인 嘉禮班次圖의 全圖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2. 嘉禮의 儀式節次

人倫之大事라고 하는 婚禮를 왕실에서는 國婚으로 거

행하는데 그 儀式節次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王의 結婚을 비롯하여 世子, 世孫의 이른바 正統과 關係있는 분들의 結婚을 뜻하는 嘉禮에서는 一般의 으로 여섯가지 儀式節次가 있다. 이 여섯가지 儀式節次는 納采, 納徵, 告期, 冊妃(世子嬪의 경우는 冊嬪), 親迎, 同牢로, 이것은 “禮記”에서 정한 儀式節次가 基本이 되고 있다. 이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⁴⁾.

① 납채(納采)

納采는 대궐에서 3番의 간택을 통해서 합격된 王妃집에 청혼하러 使者를 보내는 儀式이고, 왕비집에서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受納采儀라고 한다.

② 납징(納徵)

納徵은 納徵儀와 受納徵儀로 진행되는데 婚姻이 이루어지게 된 징표로 大闕에서 使者로 하여금 王妃 집에 禮物를 보내는 儀式을 納徵儀라고 하고, 王妃집에서 이 禮物를 받는 것을 受納徵儀라고 한다.

③ 고기(告期)

告期는 告期儀와 受告期儀로 되어 있는데, 告期는 期日を 大闕에서 택하여 告하는 儀式이고, 受告期는 王妃의 집에서 告期를 받는 儀式이다.

④ 책비(冊妃)

冊妃儀式은 大闕에서 王妃를 책봉하는 儀式과 王妃가 집에서 책명을 받는 儀式으로 진행된다.

⑤ 친영(親迎)

親迎은 王이 친히 王妃집에 가서 妃를 맞아오는 儀式으로 혼례에서 가장 중요하고 節次가 복잡한 行事이다.

⑥ 동牢(同牢)

同牢는 신랑과 신부가 交配를 마치고 나서 술잔을 나누는 儀式이다.

III.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制度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은 여기에 登場하는 人物들이 매우 多樣하듯이 그들이 입고 있는 服飾 또한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이들이 착용한 服飾은 하나의 儀禮의

인 行事を 위한 儀禮服이므로 便利性이나 實用性 위주에 일상복과는 구별되어 의도적으로 禮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다.

嘉禮班次圖를 비롯한 모든 御駕行列은 그 構成이 거대한 扈衛하는 人物과 儀仗을 받들고 가는 人物로 이루어지므로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制度는 크게 扈衛服飾과 儀仗服飾으로 나누고 다시 직급에 따라 복식표를 만들어 비교하여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표의 제작은 생략하고 복식의 形制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1. 扈衛服飾

(1) 騎行人 服飾

各 嘉禮班次圖에서 御駕를 扈衛하는데 있어서 말을 타고 扈衛하는 人物들은 文武官員들로서 이들은 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軍士를 이끄는 대장들이다. 이들이 착용한 服飾은 그 種類가 매우 다양한데, 다수가 착용한 服飾을 중심으로 그 形制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紗帽—團領

文武官의 常服인 紗帽와 團領은 昭顯世子嘉禮班次圖부터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까지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모두 볼 수 있는 복식으로서 內禁爲, 執事, 禁府都事, 部將, 郎廳, 承旨, 提調, 都廳, 內侍 등이 착용하였다. 착용자들의 職分을 보면 같은 職分이라도 王의 嘉禮時에는 梁冠에 朝服을 착용하였으나 王世子 嘉禮時에는 紗帽—團領을 착용하고 있고, 團領에는 品官에 따라 차등 있게 胸背를 다는데 嘉禮班次圖에서 胸背를 한 모습은 王世子나 王世孫의 嘉禮班次圖에서는 볼 수 없고, 後



〔圖 1〕 사모—단령
: 숙종인현후 가례반차도(左)
철종철인후 가례반차도(右)



〔圖 2〕 양관—조복
: 철종철인후 가례반차도



〔圖 3〕 구군복
: 철종철인후 가례반차도



嘉禮班次圖 중 王의 嘉禮班次圖에서만 보이고 있다(圖 1). 團領에 胸背가 빠질 수 없는데, 前期 嘉禮班次圖와 後期 王世子, 王世孫 嘉禮班次圖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團領의 色을 보면, 前期 嘉禮班次圖에서는 거의 青色 團領을 착용하였으나,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현록색의 團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團領의 形態가 前期 嘉禮班次圖에서는 비교적 소매가 좁은 형태였으나 後期로 갈수록 넓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紗帽의 각이 前期 嘉禮班次圖의 것은 밑으로 쳐져있는 반면 後期에서는 거의 직각을 이루고 있다(圖 1).

② 梁冠—朝服

梁冠—朝服을 착용한 人物들은 京兆堂上, 禮曹堂上, 憲府堂上, 兵曹堂上, 左右通禮, 司僕正, 引儀, 都承旨, 承旨, 史官, 藥房都提調, 東西班, 監察, 都廳 등으로 後期 嘉禮班次圖 중 王과 皇太子 嘉禮에서만 보이고 있다.

朝服은 文武百官이 大祀, 慶祝日, 元旦, 冬至 및 詔勅을 領布할 때나 進表할 때에 착용하던 禮服으로⁵⁾, 그 構成은 梁冠·赤絹衣·赤絹裳·白絹中單·蔽膝·佩玉·大帶·綬·笏·白襪·黑皮鞋 등으로 되어 있다. 後期 嘉禮班次圖에서 梁冠, 朝服을 착용한 모습은 착용자가 말을 탄 뒤 모습으로 梁冠은 黃色, 朝服은 紅衫 위에 後綬를 찬 모습이 화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圖 2).

梁冠—朝服을 착용하고 말을 타고 扈衛하는 것은 王과 皇太子 嘉禮가 王世子나 王世孫보다 격이 높기 때문에 團領보다 격이 높은 朝服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具軍服

이 具軍服은 武官 최고의 服裝으로 王의 행차시에는 대신이하 시위제신이 모두 具軍服을 갖추어 입었으며⁶⁾, 歷代 嘉禮班次圖에서는 哨官, 千總, 把總, 挾輦隊, 執事 등이 착용하였다(圖 3). 이와같이 御駕行列에 많은 臣下들은 軍服을 갖추어 입고 나서는데, 이는 軍服을 통해 나라의 權力을 크게 과시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軍服의 일종인 具軍服은 戰笠에 동다리·戰服·木靴를 착용하고 戰帶·兵符를 띠고, 환도·동개·등책을 등을 갖춘 服裝을 말한다.

戰笠은 氈笠이라고도 하는 벵저지이고, 동다리는 挾袖袍로서 그 모양은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뒤가 트이고 朱紅色 길에 赤色 窄袖가 달린 것이다. 동다리 위에 입은 戰服은 소매없는 네자락 옷으로 東西南北과 中央을 色相별로 하여 軍의 편대를 가르기 위해서와 軍人의 威嚴을

갖추기 위해 착용한 것이고 그 위에 戰帶·兵符를 띠고, 환도·동개·등책을 갖추었다.

④ 戎服

歷代 嘉禮班次圖에서의 戎服은 前期 嘉禮班次圖中 昭顯世子嘉禮班次圖와 仁祖莊烈后嘉禮班次圖를 제외한 모든 嘉禮班次圖에서 볼 수 있는데, 禁軍, 扈衛軍官 등이 착용한 모습은 朱笠이나 黑笠에 青色 帖裏를 착용한 것으로 笠에는 虎鬚를 세워 裝飾하였고, 紅廣帶를 하고 있었다(圖 4).

笠·帖裏(天翼)·紅廣帶(廣多會)·木靴·筒筒·弓袋 등으로 構成되는 戎服은 朝鮮時代 文武官員이 國亂을 당했을 때나 外國에 使臣으로 파견될 때, 王이 行次할 때 隨行할 경우의 服裝이다. 즉 文官이나 武官이나 모두 몸을 경첩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 착용하게 된다.

戎服으로서의 帖裏는 사대부의 便服으로도 사용되었던 옷인데, 다른 옷들과 달리 上衣와 下裳이 연결되어 있으며, 裳에 주름이 잡혀 있어 활동에 편리하게 되어 있고 直領交衽式이며 소매는 상당히 넓다.

⑤ 투구—감옷

嘉禮班次圖에서도 禁軍別將, 馬兵, 鶴前, 鶴後, 火兵, 一正, 一領 등은 儀式的 禮儀나 威嚴을 과시하기 위해 투구와 감옷을 착용하였고, 강렬한 원색적인 감옷과 투구의 色相은 여러 종류의 儀仗物과 더불어 儀式을 더욱 화려하게 해준다(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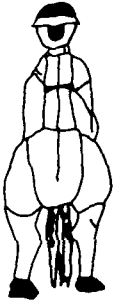
감옷과 투구는 戰爭에 임할 때 장수가 입는 服飾으로 감옷의 착용 目的은 첫째, 表衣로 입어 장수의 威容을 나타내기 위한 것과 둘째, 裏衣로 입어 전쟁터에서 生命



〔圖 4〕 주립—첩리
: 고종명성후
가례반차도



〔圖 5〕 투구—감옷
: 현종효정후
가례반차도



〔圖 6〕 모자—양복
: 순종순종비
가례반차도



〔圖 7〕 너울 : 숙종인현후 가례반차도(左)
순조순원후 가례반차도(中)
철종철인후 가례반차도(右)

을 保存하기 위한 것으로 區分할 수 있다⁷⁾.

그러므로 大朝會나 侍衛 등에는 戰時가 아니라도 威容을 갖추기 위해서 笠옷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後代로 올수록 崇主主義에 흘러 笠옷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鳥銃의 進래와 더불어 行動의 艱難이 必要하게 되자⁸⁾, 戎服이나 帖裏로서 대신하도록 하여 오히려 衰退一路로 겪었으며 宮中侍衛에서나 儀禮用으로 使用되었다.

⑥ 帽子—洋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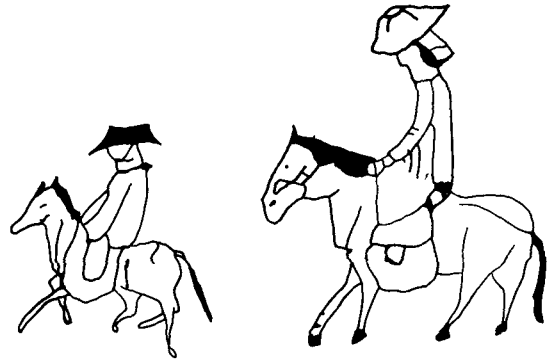
帽子和 洋服을 착용한 人物들은 當署警務官, 漢城府尹, 大隊將, 副官, 餉官, 侍衛隊慰官, 中隊將, 騎兵隊慰官 등으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嘉禮인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에서만 보이고 있다.

帽자는 거의 紅色이었고 洋服은 黑色을 착용하고 있는데〔圖 6〕, 이 服飾의 出現은 西洋文物導入期의 격변하는 社會相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⁹⁾.

⑦ 女子服飾

말을 타며 扈衛하는 人物들 중 모든 嘉禮班次圖에서 輦의 뒤에는 尙宮, 醫女, 侍女, 騎行內人 등 여자들이 뒤따르고 있다. 이들의 服飾을 보면, 尙宮, 侍女, 騎行內人 등은 前期의 嘉禮班次圖에서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나 後期에서는 尙宮은 圓衫, 侍女는 長衫을 입고 있으며 모두 너울을 쓰고 있다.

이 너울이 前期 嘉禮班次圖 中 초기에는 보통 크기였으나 서서히 작아졌다가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커지고 있어 時代에 따라 너울 크기가 다소 變化하고 있다〔圖 7〕. 醫女는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거의 綠色 저고리와 黃色의 치마를 입고 있으며 冠帽는 黃色의 氈帽를 쓰고 있



〔圖 8〕 醫女
: 경종단의후 가례반차도(左)
철종철인후 가례반차도(右)

는데 저고리 形態가 소매는 窄袖이며 저고리 길이는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다〔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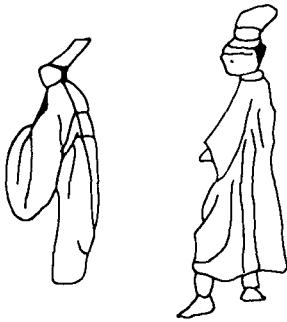
女子服飾에서도 禮儀를 最大로 갖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前期 嘉禮班次圖에서 우리 固有服飾인 치마·저고리가 주로 착용된 반면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日常服인 치마·저고리 외에도 禮服인 圓衫·長衫 등의 착용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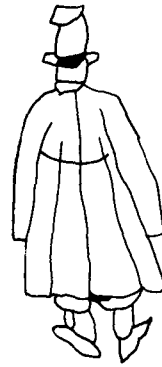
또한 엄격한 儒敎的 朝鮮社會에서 女性은 內外法에 의해 外出時 얼굴을 가리는 쓰개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강한 道德的 規範에서 要求된 것이다.

(2) 步行人服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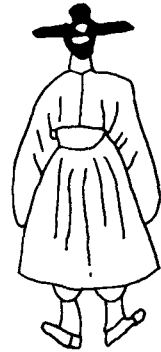
步行人服飾은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면서 御駕를 扈衛하는 人物들의 服飾을 말하는 것으



〔圖 9〕 별감부
: 인조장열후 가례반차도(左)
순종순종비 가례반차도(右)



〔圖 10〕 서리복
: 현종효정후 가례반차도



〔圖 11〕 사령복
: 순종순명후 가례반차도

로, 이들이 착용한服飾의種類는 매우 多樣한데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巾—團領

紫巾, 紅巾, 黑巾 등 巾種類에 團領을 착용한 모습은 別監, 書吏, 歸遊赤등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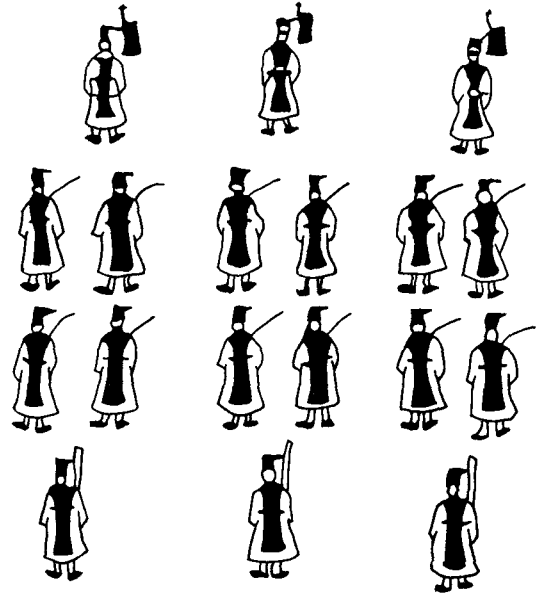
別監은 朝鮮王朝 宮中 掖庭署에 소속된 官職으로 임금이나 世子の 行次 때 御駕의 옆을 侍衛하므로 服飾이 매우 화려하였고, 그 威儀가 매우 堂堂했다.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別監의 服飾으로 巾—團領의 制度가 形態面에서는, 初期에는 소매 길이와 團領의 길이가 매우 긴 반면, 後期에는 그 길이들이 비교적 짧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色相面에서의 巾은 黑→紅→靑→紅→紫→綠으로, 團領은 靑→玄綠→紅으로 변화하고 있다〔圖 9〕.

또 巾—團領을 착용한 사람은 書吏로 이들은 衛典 중 가장 격이 높다. 歷代 嘉禮班次圖에 보이는 書吏들은 班次圖의 맨 앞부분에 當部官, 京兆堂上, 禮曹堂上, 戶曹堂上, 司諫院堂上, 司憲府堂上, 兵曹堂上, 禁府堂上 등 각부의 堂上官 앞에 5명이 횡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의 衣服은 한결같이 靑團領을 입고 黑細條兒를 띠었으나, 冠帽은 前期 嘉禮班次圖 중 初期에는 黑笠을 썼으나 나중에는 서서히 黑巾을 쓰기 시작해 後期 嘉禮班次圖에는 모두 黑巾을 써 書吏의 服飾은 形態나 色相面에서 거의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圖 10〕.

여기에서 巾—團領의 着用者에 대한 制式은 시종일관 統一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무변화 속에서 持續적으로 추구되어온 禮를 갖추어 儒敎 封建의인 朝鮮社會相과 일



〔圖 12〕 흑건 : 순종순명후 가례반차도

맥상통하고 있는 듯하다.

② 黑笠—帖裏

一般 扈衛服으로서 黑笠에 帖裏는 주로 使令들의 服飾이다〔圖 11〕. 使令은 各 官衙의 末端吏屬으로 使令, 政院使令, 都監使令, 宗府使令 등이 있다.

歷代 嘉禮班次圖에서의 이들의 位置는 班次圖 맨 앞과 맨 뒤에서 5명 단위로 횡렬로 서서 扈衛하고 있다. 使令들은 黑笠에 靑帖裏를 착용하고 있어 帖裏—色을 보여주

고 있다.

③ 黑巾—창옷·더그레

嘉禮班次圖에서 黑巾을 쓰고 창옷에 더그레를 착용한 모습은 歷代 嘉禮班次圖의 步行 扈衛服飾으로 여러 職分의 人物들이 가장 많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前射隊, 挾輦軍, 後射隊, 後先牌軍, 銃手, 棍杖手, 火兵 등으로 後期 嘉禮班次圖에는 銃手, 棍杖手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黑巾—창옷·더그레를 착용하고 있다(圖 12).

이들의 形態를 보면 黑巾은 특별한 形態가 있는 것이 아니라 下卒倍들이 쓰는 早巾으로 巾의 色에 따라 붙여진 冠帽의 일종이다.

창옷·더그레에서 창옷은 소창의라고도 하며 道袍와 周衣의 중간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옷깃이 直領이고 소매가 좁고 무가 없다.

더그레는 號衣라고도 하며, 漢陽歌에서는 營門의 軍士나 喝導, 羅將이 입는 소매가 없는 세자락의 옷¹⁰⁾이라고 한 것처럼 소매가 없이 양옆이 트인 세자락의 옷으로 창옷이나 帖裏 위에 덧 입는다. 이 더그레는 色相이 매우 多樣하여 嘉禮班次圖의 호화스러움을 한층 증가시키고, 五方色인 靑(東), 白(西), 朱(南), 玄(北), 黃(中央)을 사용하여 象徴的인 意味로 使用되었다.

④ 쇠가래—帖裏·半臂衣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쇠가래—帖裏·半臂衣의 차림은 羅將의 服裝이다.

羅將은 朝鮮時代의 下級官員으로 義禁府, 兵曹, 形曹, 五衛都總府, 司憲府, 司諫院, 平市署, 典玉署 등에서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는 일을 맡아 보았으며,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도 하였다.

보통 갈대기를 쓰고 까치등거리(作衣)를 입고 손에 朱杖을 들고 있는데, 後期 嘉禮班次圖 중 王의 嘉禮班次圖에서 보면 當府官, 京曹當上, 禮曹堂上, 兵曹堂上 앞의 羅將은 使令으로 표기되어 있고, 司諫院堂上 앞의 羅將은 喝導로 표기되어 쇠가래, 黑帖裏에 주황색 더그레 자락을 뒤로 묶은 形制를 하고 있고(圖 13), 司憲府堂上 앞의 羅將은 所由로, 禁府都事 앞은 羅將이라 표기되어



〔圖 13〕 갈도복
: 현종효정후
가례반차도



〔圖 14〕 나장복
: 고종명성후
가례반차도



〔圖 15〕 사모—단령
: 고종명성후
가례반차도



〔圖 16〕 주전립—혹의·전복
: 고종명성후
가례반차도



〔圖 17〕 방거지—협수포·전복
: 현종효정후
가례반차도

모두 쇠가래-흑첩리·흑더그레를 착용하고 있다(圖 14).

⑤ 紗帽-團領

扈衛 步行人 服飾으로서 紗帽-團領을 착용한 사람들은 內官次知, 忠贊衛, 承傳宣傳官, 內侍 등으로 이들의 班次圖에서의 위치는 輦과 각종 輿의 앞과 左右에서 扈衛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착용한 紗帽-團領에서 紗帽는 모두 黑紗帽였고, 團領은 前期 嘉禮班次圖에서는 靑色-色이나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거의 玄綠色 團領을 착용하고 있고, 前期 嘉禮班次圖의 團領과의 차이는 胸背가 있는 점이다 (圖 15).

⑥ 朱戰笠-黑衣·戰服

嘉禮班次圖에서 棍杖이나 朱杖을 들고 가는 人物로서 軍隊에서는 죄인을 다루는 兵卒인 牢子是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만 볼 수 있다. 바로 이들의 차림이 朱戰笠에 黑衣·戰服으로 朱戰笠은 주홍색이고, 黑衣는 흑색, 戰服은 청색이다(圖 16).

形態를 보면, 戰笠은 앞의 扈衛服飾에서 알아보았으므로 생략하고, 黑衣는 양옆이 트였고 소매가 좁으며 色이 검정색으로 그들의 임무에 맞게끔 實用的이고 便利한 形態인 듯하며, 下卒陪들 임에도 불구하고 禮儀를 갖추기 위해 소매가 없이 4자락의 옷인 戰服을 덧 입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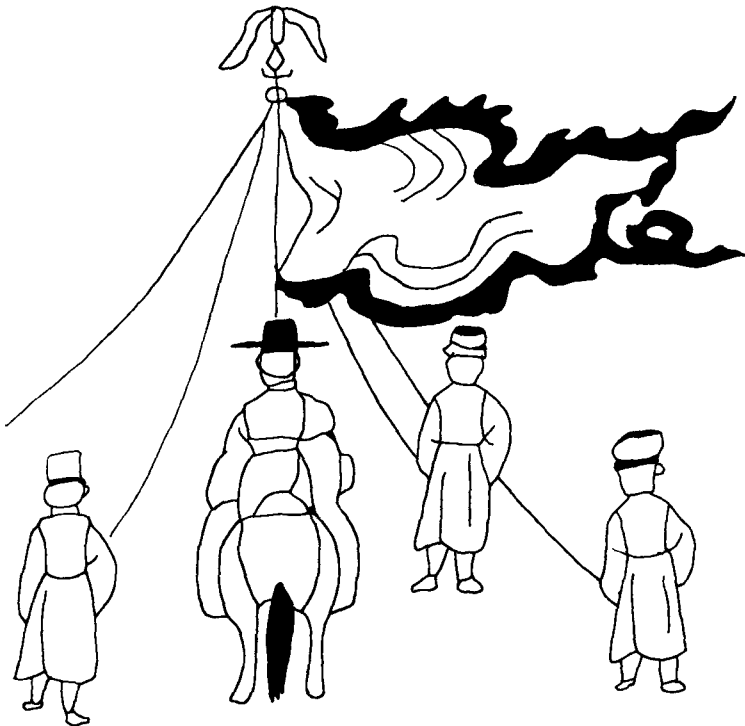
⑦ 병거지-挾袖袍·戰服

이 服飾은 宮闕을 지키고 거동때 경호하는 일을 맡은 近仗軍士의 차림새로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만 착용되었다. 近仗軍士가 쓴 병거지는 軍人, 下隸들이 주로 쓰던 검은 털모자이고, 소매통이 좁은 白色의 挾袖袍 위에 黑色인 4자락의 戰服을 덧 입었고, 손에는 등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圖 17).

2. 儀仗服飾

(1) 儀仗手服飾

嘉禮班次圖에는 御駕의 行列을 더욱 호화스럽고 威儀 있게 하기 위해 수 많은 儀仗들이 御駕의 前後에서 侍衛



(圖 18) 의장기수복 (홍건-홍의) : 영조정순후 가례반차도

하고 있다. 많은 行列圖(班次圖)들이 거의 扈衛하는 人物과 儀仗을 받들고 가는 人物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이 儀仗(儀仗旗와 儀仗物)을 받들고 가는 人物들의 服飾은 嘉禮班次圖의 服飾 中 중요한 一面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歷代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대표적인 儀仗手 服飾은 紅巾-紅衣이다. 이 紅巾-紅衣 또는 靑巾-靑衣는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골고루 착용되어 가장 많이 입혀진 儀仗手 服飾으로 儀仗手服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圖 18).

이 服飾은 어떤 特徵이 있는 것이 아니라 色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國學圖鑑」에서는 이巾을 旗手巾이라 할 정도로 旗手들이 많이 쓰고 있는 冠帽이다(圖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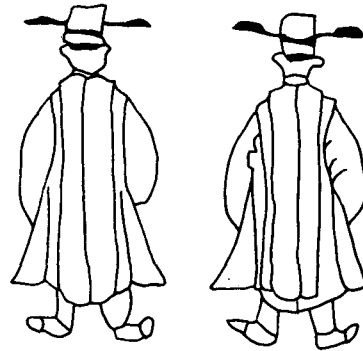
이 紅衣의 形態는 現代 두루마기 깃이고 소매는 窄袖이며 화장도 대체로 짧고 무가 없이 옆트임이 진동선부터 있으며 옷길기도 짧다. 옷감은 거친 무명으로 紅色 또는 靑色 물을 드렸으며, 단을 접지 않고 식서를 그대로 使用하는 등 바느질도 엉성하다¹²⁾.

儀仗手 服飾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儀仗을 받들고 行列에 참석해야 하므로 美的인 면보다는 實用性, 便利性이 크게 중시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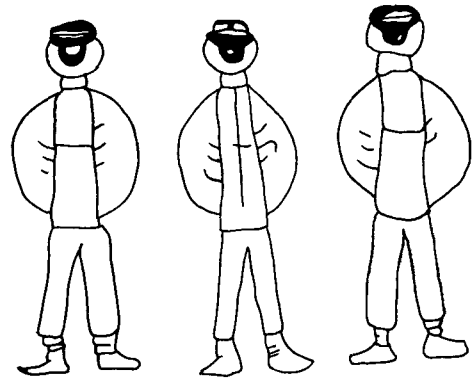
(2) 樂人服飾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樂인들이 착용한 服飾은 복두에 紅靑 團領이 대부분 착용되어 대표적인 樂人服飾이라 할 수 있겠다.

樂學軌範의 雅樂陣說圖說에 의하면 「登歌에 樂師는 복두를 쓰고 붉은 公服을 입고, 金銅革帶와 붉은 빛과 흰 빛이 섞인 큰 革帶를 띠고, 흰 베버선에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라고¹³⁾되어 있어 樂師는 복두에 公服을 착용하였으나 壬辰亂, 丙子亂以後 복구되지 못하고 복두에 紅團領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므로 朝鮮中後期에 樂人服



【圖 20】 복두—홍단령
: 순중순중비 가례반차도



【圖 21】 국악대의 모자—양복
: 순중순중비 가례반차도

飾으로는 복두에 紅團領이 一般的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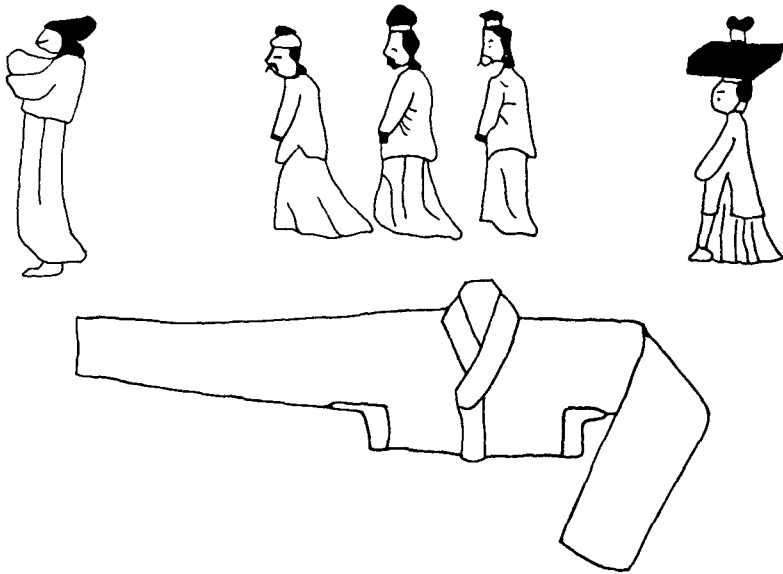
그러나 高宗 32년(1895) 衣制 改革의 影響으로 西洋式 帽子和 洋服이 登場하므로써 우리나라의 마지막 嘉禮인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1906)에서 鼓吹隊는 복두에 紅團領을 그대로 입었으나[圖 20], 軍樂隊는 帽子上에 洋服을 착용하고 있어(圖 21) 樂人服飾 역시 西洋文物導入期의 變化해가는 社會相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捧擔服飾

本考에서 捧擔服飾이라 함은 各 嘉禮班次圖에서 王, 王妃의 輦이나 여러가지 輿을 받들고 가는 輿人, 햇불, 촛불을 들고 가는 捧燭, 捧芭手, 褥席, 排案床, 馬机, 交椅, 函, 脚踏, 灌子, 孟子, 衣褂 등 嘉禮儀式에 필요한 物品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服飾을 말한다. 捧擔人들은 주로 下層階級에 속하는 官隸들이므로 이들의 服飾



【圖 19】 쇠가래
: 국학도감



〔圖 22〕 저고리—치마 : 숙종인경후 가례반차도(左) 영조정순후 가례반차도(中)
순종순중비 가례반차도(右) 청연군주의 저고리(下)

또한 매우 엉성한 것 같다.

歷代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捧擔手 服飾으로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는 紅巾—紅衣 또는 靑巾—靑衣 를 들 수 있다. 戴香, 戴函, 捧香手들은 매우 낮은 身分 의 여자들로 모두 우리나라의 固有服인 치마·저고리를 입고 있다. 이것의 색은 初期에는 저고리 색이 靑色 또는 綠色이고 치마가 黃色 種類가 많았으나,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모두 黑色 또는 갈색 種類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다.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저고리의 形態를 자세하게 파악 할 수는 없지만, 저고리 길이를 볼 때, 이들이 입고 있는 저고리의 형태는 양옆이 트였고 길이가 초기에는 짧다가 후대로 갈수록 허리 밑을 덮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朝鮮朝 여인들이 착용하던 평상복 차림의 저고 리는 朝鮮 初中後期를 거치면서 그 길이가 허리를 드러 낼 정도로 더욱 짧아지고 있어 班次圖에 나타난 저고리 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圖 22).

이 짧은 저고리 길이가 西洋文物導入기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西洋文物導入기에 舉行된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에 4명의 戴函 人物이 입고 있는 검정 저고리와 갈색 치마에서 검정 저고리는 엉덩이를 덮고 있다. 역시

禮를 극도로 중시하는 儀禮의 行事에서 오는 結果인 듯 하다.

IV. 嘉禮班次圖 服飾의 特徵과 變遷 分析

歷代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形態를 이제까지 알아 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의 전체적인 特徵과 變遷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騎行人 服飾은 前期 嘉禮班次圖에서는 紗帽—團領 일색이나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紗帽—團領 이외에도 文武官의 禮服인 梁冠—朝服, 투구—감옷, 具軍服, 戰笠—戎服, 帽子—洋服 등이 새롭게 착용되었다.

이 중에서 紗帽—團領은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별 變化 없이 모두 보이고 있으나 梁冠—朝服과 투구—감옷은 王의 嘉禮에서만 착용되었다. 이는 前後期로 區分되는 班次圖 上에서 오는 特徵이기도 하지만, 嘉禮 對象에 따른 原因도 意義를 갖는다.

儀禮의인 行事인 만큼 한 나라의 최고의 權力者인 王의 嘉禮 때에는 최대로 禮儀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梁冠에 後綬를 한 朝服이 王의 嘉禮에서만 보이고 있으며, 같은 職分이라도 王世子나 王世孫의 嘉禮에서는 보다 낮

은 格式의 차림인 紗帽一團領을 착용하였다.

투구·갑옷도 王의 嘉禮에서만 사용된 것은 투구—갑옷이 朝鮮 初期에는 사용되었지만 朝鮮 後期로 갈수록 거의 사라진 狀態이므로 嘉禮班次圖에서는 하나의 戰鬪服으로 使用된 것이 아니라, 武官이 行列에서 威嚴과 장엄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儀禮의인 目的으로 무장을 하고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紗帽一團領을 착용하였다 하더라도 前期 嘉禮班次圖에서는 變化가 없이 黑紗帽에 주로 靑團領을 입었으나,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黑紗帽에 玄綠色 團領이 主類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品官에 따라 차등있게 團領에 착용하던 胸背가 王世子나 王世孫의 嘉禮에서는 볼 수 없고 王의 嘉禮에서만 보이고 있다.

· 步行人 服飾은 騎行人 服飾보다 더욱 服飾의 分化를 가져온 것 같다. 前期 嘉禮班次圖에서 巾 種類에 團領으로 일관되어진 步行人 服飾이 後期에 가서는 이외에도 구군복, 黑笠一帖裏, 黑巾一창옷·더그레, 쇠가래—帖裏·半臂衣, 紗帽—團領, 朱戰笠—黑衣·戰服, 병거지—挾袖袍·戰服 등으로 확대 分化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登場 人物이 단조로운 前期 嘉禮班次圖에 비해 行列이 길어져 등장인물이 크게 증가하므로 해서 나타나는 結果일지 모르나, 이는 朝鮮時代의 身分制度의 分化에서 오는 服飾의 格式差일 것이다.

· 儀仗手 服飾은 紅巾—紅衣 또는 靑巾—靑衣가 儀仗手 服飾의 대명사처럼 통할 정도로 昭顯世子嘉禮班次圖부터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까지 두루 착용되었다.

이들은 儀仗을 받들고 가는 下卒陪들 임에도 불구하고 儀禮的 行事に 動員되는 人物이므로 冠帽까지 갖추어 입은 것으로, 거의 300년 동안 服飾의 形態에 變化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西洋文物導入期에도 儀仗手 服飾만은 影響없이 그대로 紅巾—紅衣를 착용하고 있음을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에서 볼 수 있다.

이 服飾은 그들의 職分에 맞게 便利하고 단조로운 形態인 반면 衣服 色相에서 靑, 紅 등으로 화려한 色相을 使用하였다.

· 樂人 服飾은 복두에 紅團領이 대표적인데, 前期 嘉禮班次圖中 王世子 嘉禮에서 樂人이 登場하지 않았고, 後期 嘉禮班次圖에서는 王世孫 嘉禮에서 登場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嘉禮班次圖에서는 前後期 차이 없이 服飾의 形制가 변화없이 똑같이 착용되었다.

· 捧擔 服飾 역시 손에 물건을 들고 行列에 참석해야

하므로 어떤 美的인 面이 고려된 格式있는 衣服을 입은 것이 아니라 實用性, 便利性 위주의 服飾인 紅巾—紅衣 또는 靑巾—靑衣를 대다수가 착용하였다.

歷代 嘉禮班次圖에서 捧擔 服飾의 形制 變化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西洋文物導入期의 것인 純宗純宗妃嘉禮班次圖에는 격변하는 社會 모습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西洋式 帽子和 洋服의 出現이다.

그러나 이 服飾이 착용된 範圍는 嘉禮班次圖에서 다소 직급이 높다고 할 수 있는 官員, 軍士들이고, 下卒陪 服飾에는 전혀 影響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外國文物의 影響이 上類層에 먼저 받아 들여지고 있는 二重 構造를 볼 수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朝鮮王朝時代의 嘉禮都監儀執에 수록된 嘉禮班次圖를 통해 朝鮮中後期の 儀禮服의 特徵과 變遷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嘉禮儀式節次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다.

嘉禮儀式節次는 六禮인 納采, 納徵, 告期, 冊妃, 親迎, 同牢 순으로 거행되었고 嘉禮班次圖에 나타난 服飾의 特徵과 變遷에 대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① 嘉禮班次圖에는 다양한 形態의 服飾이 여러 職分에서 착용되어 朝鮮時代의 엄격한 身分制度에 따라 服飾도 分化됨을 볼 수 있다.

같은 職分이라도 王의 嘉禮때의 차림과 王世子 嘉禮때의 차림이 차이가 나는데, 즉 王의 嘉禮때 梁冠—朝服의 착용자가 王世子 때에는 紗帽—團領을 착용하고 있다.

② 前期 嘉禮班次圖에는 服飾의 種類가 매우 적은 편이나 後期 嘉禮班次圖에는 매우 多樣한 種類의 服飾이 登場하고 있다.

이것은 前期 嘉禮班次圖는 壬辰倭亂 등 國亂을 당하고 나서 그 影響으로 나라의 狀況이 全般의으로 疲敝한 狀態이므로 國家的인 儀禮的 行事を 행하는데 필요한 制度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다.

③ 扈衛服飾은 登場하는 職分이 多樣하므로 그에 따라 매우 많은 種類의 服飾이 착용되어 儀禮服인 만큼 美的인 面을 최대한 強調하여 禮儀를 갖추려 했으나, 儀仗服飾은 歷代 嘉禮班次圖에 거의 變化가 없이 紅巾—紅衣(靑巾—靑衣) 일색으로 服飾形態가 單純한 반면 靑色을 使用하여 화려하게 하였다.

④ 마지막 嘉禮에는 西洋式 帽子和 洋服이 登場하여 기존에 착용되던 많은 服飾은 西洋式 服飾으로 대체되므로서 西洋服飾과 우리 服飾의 二重構造를 낳고 있다.

參 考 文 獻

- 1) 劉頌玉, 朝鮮時代 儀軌圖의 服飾研究, 흥익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p. 3.
- 2)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서 조사.
- 3) 劉頌玉, 前揭書, p. 7.
- 4) 「國朝五禮儀」卷之 3 參照.
- 5) 유희경,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대출판부, 1975, p. 301.
- 6) 유희경, 前揭書, p. 342.
- 7) 고복남, 韓國衣服의 類型과 樣式, 集文堂, 1987, p. 99.
- 8) 金東旭, 증보 韓國服飾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79, p. 72.
- 9) 白英子, 우리나라 鹵簿儀衛에 관한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5, p. 296.
- 10) 李石來校註, 漢陽歌, 신구문화사, 1974, p. 32.
- 11) 「國學圖鑑」, 일조각, p. 19.
- 12) 朝鮮時代 宮中服飾,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p. 85.
- 13) 「樂學軌範」第二卷 雅樂陳設圖設.
- 14) 嘉禮都監儀軌 30卷.
- 15) 李京子, 嘉禮都監儀軌의 服飾研究, 服飾 창간호, 1977, p. 21-48.
- 16) 여춘구, 왕세자 가례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76.
- 17) 김혜경, 창덕궁소장 가례반차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